



'내 남자가 바람났다'의 저자

## 송강희의 누·드·토·크

아내 아닌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 그려더군요. 사랑하는 감정이 사람 밤대로 되는 거나고, 나도 나를 어쩔 수가 없다고, 나도 힘들다고...

'사랑의 감정은 어쩔 수 없다' 외도도 사랑이다 / 고로 외도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논리구 조인 거 같습니다. 한술 더 떠, '사랑은 아름답다/ 외도도 사랑이다 / 고로 외도도 아름답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사랑... 참 이상한 분들에게 걸려서 고생 많이 합니다.

외도를 논할 때 사랑의 탈을 써우면 참으로 그럴싸해보이지요. 비련의 요소도 참가되고, 불가항력의 냄새도 피우면서, 나이들어도 무뎌지지 않는 감성과 아직까지 죽지 않은 자신의 이성적인 매력까지 살짝 자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불륜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정신 살짜 가출하신 분도 계시더군요.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고 하시니,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다른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지요. 인간은 배설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배설을 참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찌면 사랑을 억누르는 것보다 더 힘

든 일일겁니다.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지만 광화문 큰길가에서 대변보는 사람 없습니다.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만 되어도, 배설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니 다릅니다. 똑같은 배설행위지만 화장실에서 하는 것과 대낮에 광화



문 한복판에서 대변을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지요. 광화문 큰길을 오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 대변 마루우신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다들 참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가지요. 배설해야하는 욕구는 화장실에서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광화문 한복판에

서 그런 짓 하면 문제가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한 사람과 하면 아름답습니다. 사랑을 두사람과 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탈을 쓴 거짓말이고 배신이고 아주 추한 짓이지요.

외도에 사랑의 탈을 써우면  
참으로 그럴듯해 보이지요.  
그러나 외도는 광화문 복판에서  
똥마렵다고 바지내리는 것과  
똑같은 짓이지요.

사랑은 상대를 책임지는 행위이고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사랑하다가 헤어지는 날이 오더라도, 헤어지는 그날까지는 순결을 지키고 상대를 책임지고 그 상대와만 하는게 사랑이지요. 뭐라고 갖다 붙여도 외도는 사랑의 본질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일입니다.

외도는 무책임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배설행위이고 배우자를 배신하는 치졸하고 비겁한 행위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배우자의 등에 칼을 끊는 일이지요.

외도에 사랑의 탈을 써워 논점을 일탈하고 범주를 넘나들면 안됩니다. 이렇게 논구술 하시면 대화 뜻갑니다. 외도가 사랑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어쩔 수 없다고 우기는 건, 광화문 한복판에서 대변을 보는 것인 인간의 참을 수 없는 생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외로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게 있다면, '범죄'에 대해 '범죄라는 자각'이 없는 것입니다. 결혼했어도 다른 이성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살다보면 외도할 수도 있고, 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외도해도 된다고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한술 더 떠, 외도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 답 없습니다.

외도는 사랑을 어찌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아니고 거짓말로 점철된 정조박약, 지조불건전한 행위입니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똥 마렵다고 바지 내리는 것과 똑같은 짓이지요.

## 검색정정 키워드

## 검색

아역 텔런트 출신 인기 가수 유니(본명 허윤·여·26)의 자살 소식이 무더기 클릭 세례를 받으면 인터넷 검색이 1위에 올랐다.

유니는 지난 21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경찰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니가 인터넷에 올라온 악의성 댓글로 우울증에 심해져 자살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주제가 제기되면서 악플 자정 운동을 벌이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또 조문객도 거의 없이 장례식이 쓸쓸하게 치러진 뒤 가수 김진표가 미니 홈페이지에 '맨날 방송국에서 훈련받은 기계' 인양 고개 숙이고 소리 높

## 악플과 우울증이 부른 유니의 자살 네이션 충격

여 인사하는 예의바른 가수들 왜, 장례식장까지는 갈 시간이 없었던 거야?"면서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결혼식 죽가는 마다 않고 가는 사람들이 왜 자신의 동료를 떠나보내는 자리에는 오지 않는 거야"라며 손소리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잔혹 동화도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지난 1999

년 일본 소설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그림동화'의 유행으로 불을 이룬 잔혹동화가 다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것이다. 잔혹 동화는 잘 알려진 동화를 기본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잔인하게 각색한 것으로, 일부 청소년들은 읽는 수준을 넘어 자신만의

동화를 직접 쓰고 공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검색어에 올랐다.

예컨대 백설공주가 아름다운 왕비를 시기해 살해하거나 정신분열에 걸린 신데렐라가 계모를 둔기로 때죽죽인다는식의 악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연예계 공인 커플인 이정재-김민희 결별 소식도 네이션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03년 한 이동통신사 CF촬영장에서 첫 만남 뒤 이듬해 당시 연예인으로서는 드물게 열애 사실을 공식 선험하며 공개 데이트를 즐겨왔지만 3년 만에 관계를 정리한 것.

연예인들의 결혼·열애 소식도 잇따르면서 이를

에 대한 검색 빈도도 높았다.

지난 28일 9살 연상 사업가 최명호(50)씨와 결혼식을 올린 개그우먼 이경실(41), 동갑내기 재일 교포 회사원과 결혼식을 올린 정선경(36)씨, 오는 27일 결혼식을 올리는 텔런트 왕빛나(26)와 예비 신랑 프로골퍼 정승우(32), 오는 3월 1일 결혼식을 올리는 '주몽'의 혜적두목 텔런트 윤용현(38)과 9세 연하 피아노 연주가 박수진(29·순천시립 학창단)씨 등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주간 급상승 검색어				
<네이트 뉴스 제공>				
1위	유니 자살	6위	이동국	행운의 숫자 : 23.43
2위	진홍동화	7위	정선경 국비결혼	37년생 속 흐름이 드물어졌다. 60년생은 아침에 진홍동화를 넘나들면 안됩니다. 60년생 속 시원한 결말은 없고 연결만進行합니다. 84년생 꿈꾸는 행운의 숫자 : 18.32
3위	요코이야기	8위	자진	38년생 변동에 변동으로 생겨나질 않습니다. 50년생 先多吉小로 괴로움이 많다. 62년생 우선은 어려우나 길가가 발생할 징조는 있다. 74년생 변동 변화는 마지막 아름다워 할 것입니다. 75년생 오랜 친구가 박수진(29·순천시립 학창단)씨 등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
4위	세 지폐	9위	이정재 김민희 결별	행운의 숫자 : 10.42
5위	황우석의진실	10위	이경실 결혼	39년생 겸겨망망하지 말고 더 광망하면서 계획만 세우라. 51년생 데리고 있던 협력자도 도망간다. 63년생 점차적으로 축소하여 살리고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75년생 오랜 친구가 박수진(29·순천시립 학창단)씨 등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

36년생 時機尙早이 듯하지만 안내자가 나타난다. 48년생 남의 말과 좋은 곳으로 변동하려고 하지마라. 60년생 경기위주로 진로를 둘려라. 72년생 속 시원한 결말은 없고 연결만進行합니다. 84년생 꿈꾸는 행운의 숫자 : 23.43

37년생 환호랑이 코발트를 건드는 격이다. 49년생 어선은 아들을 살펴보라. 61년생 금진은 불허하니 서행하며 살피거라. 73년생 많은 생각을 해야 할 때다. 85년생 주변 정돈을 정확하게 한다면 답입니다.

38년생 변동에 변동으로 생겨나질 않습니다. 50년생 先多吉小로 괴로움이 많다. 62년생 우선은 어려우나 길가가 발생할 징조는 있다. 74년생 변동 변화는 마지막 아름다워 할 것입니다. 75년생 오랜 친구가 박수진(29·순천시립 학창단)씨 등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

39년생 생겨망망하지 말고 더 광망하면서 계획만 세우라. 51년생 데리고 있던 협력자도 도망간다. 63년생 점차적으로 축소하여 살리고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75년생 오랜 친구가 박수진(29·순천시립 학창단)씨 등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

40년생 이면작으로 정리하고 하고 있는 사업의 점검이 필요할 때다. 52년생 서둘지 말고 靜處할 필요가 있다. 64년생 더 큰 객관적인 판단이 서야 한다. 76년생 하늘이 협조하니 과육하고 좋으리다.

41년생 매사에 큰 진전은 없고 먹고 노는 유용수가 많은 형상이다. 53년생 큰 고생은 없으나 새로운 투자는 금하다. 65년생 의외의 재가생기고 부부간의 정이 새롭다. 77년생 이성간의 부부제가 맑설게 수니처신을 잘해라.

42년생 어려운 시절이 지나니 향후를 위해서 좋은 선제가 필요하다. 54년생 하늘이 노하니 백사에 도움이 없다. 66년생 하늘이 도우니 수입은 무난하다. 78년생 자녀들의 활동이 활기차고 봄보인다.

43년생 대고가 없이 진행하는 순조롭다. 55년생 직업이 새로 생기고 개인의 성장이 뛰어난다. 67년생 마지막 조심을 더하자 설계는 그리나 진행은 하지마라. 79년생 활동에 불편이 생기고 말조심을 해야 한다.

44년생 변동은 금풀이이고 투자는 순체만 남는다. 56년생 미투리를 잘하고 괴로움을 금하라. 68년생 청진이 없어도 내습을 기우라. 80년생 투자와 소비가 사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듯하니 심신을 안정하라.

45년생 金氣運이 강하니 간장을 살펴보라. 57년생 하루 종일 조심하리 믿는 도끼가 품을 준다. 69년생 흥이 복으로 되는 길목에 찾도록. 81년생 코와 피부염을 조심하고 윤통 위장까지 살펴보라.

46년생 주변을 정리하고 절대로 신사는 참여마라. 58년생 아직은 활발하나 내일을 준비하라. 70년생 희비나 무리수는 두지 마라. 82년생 크게 도움 받는 일은 없지만 내용적 계획은 순조롭다.

47년생 암울했던 과거는 지나가고 안도의 기분이나 긍정은 이르다. 59년생 조심스러운 외출은 할 수 있으나 아직 재물은 공하고. 71년생 혼자 고민하지 말고 옛날의 좋은 인사를 찾아보라. 83년생 瞑處이자신하니 신중히 처신하라.

행운의 숫자 : 24.27

48년생 어려운 시절이 지나니 향후를 위해서 좋은 선제가 필요하다.

50년생 꿈꾸는 행운의 숫자 : 20.39

52년생 대고가 없이 진행하는 순조롭다. 55년생 직업이 새로 생기고 개인의 성장이 뛰어난다. 67년생 마지막 조심을 더하자 설계는 그리나 진행은 하지마라. 79년생 활동에 불편이 생기고 말조심을 해야 한다.

54년생 金氣運이 강하니 간장을 살펴보라. 57년생 하루 종일 조심하리 믿는 도끼가 품을 준다. 69년생 흥이 복으로 되는 길목에 찾도록. 81년생 코와 피부염을 조심하고 윤통 위장까지 살펴보라.

56년생 미투리를 잘하고 괴로움을 금하라. 68년생 청진이 없어도 내습을 기우라. 80년생 투자와 소비가 사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듯하니 심신을 안정하라.

58년생 주변을 정리하고 절대로 신사는 참여마라. 60년생 아직은 활발하나 내일을 준비하라. 72년생 희비나 무리수는 두지 마라. 84년생 크게 도움 받는 일은 없지만 내용적 계획은 순조롭다.

60년생 암울했던 과거는 지나가고 안도의 기분이나 긍정은 이르다.

62년생 조심스러운 외출은 할 수 있으나 아직 재물은 공하고. 74년생 혼자 고민하지 말고 옛날의 좋은 인사를 찾아보라. 86년생 瞑處이자신하니 신중히 처신하라.

## 뉴스퀴즈

48.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한 가마니(80kg)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곡 연도(2005.11~2006.10)의 기구 부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0만 원에 기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의 경우 2001년 88.9kg에서 2003년 83.2kg, 2005년 80.7kg으로 감소 추세에 서도 80kg을 둘렀지만 지난해 80kg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얼마나 될까요?

① 78.8kg ② 80.7kg ③ 90kg ④ 100kg

## 참여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 매체부 퀴즈답장부 앞 우편번호 501-711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6일(음 12월 8일庚申)



36년생 時機尙早이 듯하지만 안내자가 나타난다. 48년생 남의 말과 좋은 곳으로 변동하려고 하지마라. 60년생 경기위주로 진로를 둘려라. 72년생 속 시원한 결말은 없고 연결만進行합니다. 84년생 꿈꾸는 행운의 숫자 : 23.43



37년생 환호랑이 코발트를 건드는 격이다. 49년생 어선은 아들을 살펴보라. 61년생 금진은 불허하니 서행하며 살피거라. 73년생 많은 생각을 해야 할 때다. 85년생 주변 정돈을 정확하게 한다면 답입니다.

